귤나잇은 서귀포 시내 중심권에 위치합니다. 남쪽 동네 어디든 접근이 용이하고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3천 평 귤 밭 안에 있기 때문에, 한적하고 호젓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80년 대에 지어진 주택을 저와 남편이 귤나잇으로 개조하고 꾸몄어요. 집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옛날 할머니 댁에 놀러 온 아늑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숙소는 은퇴 이후 도시에서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제주로 오신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즉, 귤나잇의 호스트는 총 세 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테리어와 예약 및 체크인을 담당하는 저, 객실 청소와 셋팅을 담당하시는 아버지, 정원을 가꾸며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머니가 함께 귤나잇을 꾸려 가고 있답니다. 꼼꼼하고 깔끔한 부모님께서 숙소를 정성껏 가꾸고 계셔서 청결만큼은 안심하고 오셔도 좋아요."

귤나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153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속골로 66-7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숙소에서 창 밖 가득 펼쳐지는 드넓은 귤 밭과 시원한 한라산 능선

• 노오란 귤이 주렁주렁 달린 귤밭 너머 흰 눈이 소복하게 덮힌 한라산 능선에 비스듬히 비치는 노을

• 사계절 모두 매력적이지만, 특히 겨울의 귤나잇은 엄지 척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오션 뷰보다는 마운틴 뷰를 좋아하는 분

• 책과 함께 하는 여행객

• 올레길 7코스를 지나는 올레꾼

• 80년 대 할머니 집 감성을 원하지만 청결도 놓칠 수 없는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이 있어요.

• 서귀포 버스 터미널이 가까워요.

• 숙소 1층에 규모는 작지만 큐레이션이 알찬 동네 책방이 있어요.

• 유아용 의자와 유아용품이 있어요.

• 오래 전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파트나 호텔처럼 따뜻하지 않을 수 있어요.